SK이노 '스키노맨'이 전하는 CES, 유튜브서 화제

계열사 막내사원으로 구성된 스키노맨
유머 담아 CES 소개… 재미·유익함 더해

SK이노베이션이 제작한 '스키노맨 동영상'이 화제다. SK이노베이션은 계열사 막내사원들로 구성된 '스키노맨(SKinnoMan)' 4인방이 지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한 'CES 2020'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제작한 CES 현장 소개 유튜브 동영상이 인기라고 19일 밝혔다.

스키노맨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홍보실 막내사원 4인이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기투합해 만든 프로젝트팀이다. 각기 빨강·파랑·분홍·보라 등 4가지 색의 운동복을 입고 통통 튀는 감성으로 구독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SK이노베이션의 스키노맨 동영상 이미지. /SK이노베이션

스키노맨은 전시 준비가 한창인 개막 전날부터 CES전시관에 마련된 SK부스에 입장해 주요 전시 콘셉트를 미리 공개해 기대감을 조성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을 밀레니얼 세대의 유머 코드를 담아 재미있게 소개해 재미와 유익함을 더했다는 평가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80여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새해모임'

LG디스플레이가 새해에도 협력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약속했다.

LG디스플레이는 17일 경기 파주 사업장에서 '2020년 동반성장 새해 모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임원들과 함께 80여개 핵심 부품 및 장비 협력사 CEO들이 직접 참가했다. LG경제연구원 박래정 부문장의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강연도 이어졌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참가자들에 회사의 사업 전략을 직접 설명하고,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과 구매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대형 OLED 대세화, ▲P-OLED 사업 턴어라운드 ▲LCD 구조혁신 가속화 등이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성과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도한 9개 부품 및 설비 협력사에 '베스트 파트너 어워드'를 수여하기도 했다. /김재웅 기자 juk@

(왼쪽부터) LG디스플레이 CTO 강인병 부사장, 이녹스첨단소재 김필영 대표이사, 탑엔지니어링 김원남 대표이사, 디엠에스 박용석 대표이사,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이사, LG디스플레이 CEO 정호영 사장, 티엘아이 신윤홍 대표이사, 화인알텍 장대수 대표이사, LG디스플레이 구매그룹장 최영근 전무. /LG디스플레이

오늘의 운세

1월 20일 (음 12월 26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된다. **48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60년생**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72년생** 남의 말은 잘해야 사흘을 넘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84년생** 몸이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할 것.

소 **37년생** 이미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면 견제를 받게 된다. **49년생** 뱀띠의 도움으로 계약을 무사히 체결. **61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73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따른다. **85년생** 포용하는 것이 일의 관건.

호랑이 **38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50년생** 게으름은 익숙한 일도 망친다. **62년생** 결혼은 둘이 했으나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여행이다. **74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 **86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토끼 **39년생** 집안 경사에 기쁨이 두 배가 된다. **51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3년생** 사방이 깜깜하니 곧 새벽이 온다. **75년생** 재물은 들어오지만 바로 나가야 할 돈. **87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자.

용 **40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52년생** 마음먹은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64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니 더 노력. **76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88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뱀 **41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큰 낭패. **53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65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77년생** 빚내서 빚을 갚는다. **89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이다.

말 **42년생**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54년생** 괴로운 일인 듯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66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78년생** 행복은 화목에서 시작한다. **90년생** 부지런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양 **4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조심. **55년생** 작은 구멍이 큰일을 만든다. **67년생** 유쾌 통쾌 상쾌한 하루. **79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 써라. **91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원숭이 **44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56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 **68년생**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 **80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92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해야 한다.

닭 **45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57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내게는 유리. **69년생**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일이 있다. **81년생** 적당한 경쟁은 서로에게 득. **93년생**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며 견뎌 보자.

개 **46년생** 자존심은 나를 지켜주는 힘. **58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70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는 게 좋다. **82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물. **94년생**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라.

돼지 **47년생** 어려운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59년생**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도록. **71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문서로 남겨라. **83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삼가라. **95년생** 멀리서 온 친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3
			9				1	
9	7	1	5			2		
				8		3		2
	5	8	6		2	1	9	
4		2		5				
		5			6	7	8	9
	1				4			
2		7						

		5				8		
4		8				3		1
3			9	4	8			5
		3	8		4	7		
				6				
		6	2		3	9		
5			1	3	7			9
6		7				4		2
		9				1		

스도쿠 정답

1	3	4	5	9	8	7	6	2
5	2	6	4	7	3	9	1	8
9	8	7	6	1	2	5	4	3
6	7	8	9	5	1	2	3	4
4	9	1	2	3	6	8	5	7
2	5	3	7	8	4	6	9	1
8	4	2	3	6	5	1	7	9
3	6	5	1	4	9	3	2	8
7	1	9	8	2	7	4	6	5

7	9	5	3	1	2	8	6	4
4	2	8	6	7	5	3	9	1
3	6	1	9	4	8	2	7	5
2	5	3	8	9	4	7	1	6
9	8	4	7	6	1	5	2	3
1	7	6	2	5	3	9	4	8
5	4	2	1	3	7	6	8	9
6	1	7	5	8	9	4	3	2
8	3	9	4	2	6	1	5	7

문제 제공= 보누스

대학 등록금 동결 언제까지

기자 수첩

한 용 수 〈정책사회부〉

사립대학 총장들이 올해 등록금을 법정 인상률이라도 인상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시작한지 올해까지 12년째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학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 대학 80% 수준이 국공립대학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사립대학이 같은 비율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건 무리다.

결국 우리나라 등록금은 비싸지만,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정부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초중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국가지원을 받고,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확대된데다, 대학 입학비율은 OECD 최상위인 70%에 육박한다는 걸 보면, 우리는 분명 교육 선진국이다. 그에 걸맞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도 등록금 동결 정책보다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듯 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라면서도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인가를 조금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 등록금 정책의 근본 원인은 파악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대학들의 재정여력 악화는 결국 대학의 경쟁력 하락과 미래 세대 인재 양성에 서서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여론 눈치만 보면서 대학 등록금 해결방안을 미루는 것은 우리 고등교육을 서서히 죽이는 참사를 눈 뜨고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지금의 등록금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학생과 고등교육 수혜자를 피해자로 몰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 확대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hys@metroseoul.co.kr

김상회의 四季

주역점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게 된 것도 지구의 나이(약137억년)로 치자면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문자를 사용하여 문명 시기를 시작한 것은 현존하는 고대 문자를 살펴보아도 채 오천 년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더 문명화된 인식으로 존재로 사는 삶을 고민하고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시간 속에 놓여 있었다.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신탁을 듣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들이 존경을 받고 권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과거 전제 시대 때 제정일치 사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사장은 하늘의 뜻을 듣고 인간세계에 전달했다.

부족의 큰일이나 여러 결정에 대하여 하늘에 그 뜻을 묻는 신탁의 전달자이자 매개자였었다. 그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도 없었거니와 무리의 지도자나 우두머리로서 대표성이 있어야 했다.

왕(王)이라는 한자도 잘 살펴보자. 하늘과 땅과 인간을 세(三) 가로획으로 그었다. 그사이를 세로 막대로 잇고 있음을 본다면 제사장이 곧 왕과 동일 인물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갑골문자도 점을 친 결과나 신탁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기 위함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처음으로 갑골문이 발견되었을 때 새겨진 내용은 점을 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었다. 점을 칠 때 하늘에 물은 내용과 응답을 갑골 위에 칼로 새겨 보관했다. 이러한 갑골문이 새겨진 자리가 옛 은나라의 남겨진 터에서 발견이 되어 은허(殷墟) 문자라고도 한다.

은나라를 이은 주나라의 문왕은 점을 치기 위한 보다 세련된 방법의 주역을 완성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71호